

# ‘비트코인 좀비’ 속출...광풍 원인은?

#. 대학생 홍모(27)씨는 학업과 취업 대비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쁘지만 올해 3월부터 비트코인에 소액을 투자해오고 있다. 원래 블록체인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기록된 공개 장부에 관심이 있었던 홍씨는 투자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시세가 오르면서 소소한 재미를 많이 느낀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데 총 109만원을 썼는데 최근 보유 가치가 27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앞으로도 가상화폐 원천기술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투자 의향은 여전하다.

#. 서울 강동구에 사는 현모(42)씨는 친구 따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처음 친구가 시작할 땐 한 개당 2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400만원으로 두 배로 뛰자 투자를 결심했다. 1BTC당 450만원일 때 매입해 1800만원까지 올랐다. 주식은 종목에 따라 등락폭이 다르고 쉽게 오르지도 않는 반면 비트코인은 잠재적으로 가치가 더 크고 거래방식도 복잡하지 않아 쉽게 빠져들었다.

사회·경제 불안해 한탕주의 만연...비트코인 광풍 유발

“도박·사행심리 부추겨...복권·인형뽑기보다 더 중독”

“한국서 유독 쏠림 심한 건 집단주의 문화 때문” 분석도



비트코인이 이들 연속 급등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한 시민이 거래 시세를 보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심상치 않다. 유력 외신들이 한국 내 비트코인 투기 과열을 우려할 정도다. 열풍을 넘어 '광풍(狂風)'이 확산되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국내에 불고 있는 비트코인 광풍은 투기 세력이 몰려들어 과열된 측면이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미래 잠재적인 가치를 기대하고 관심을 둔 사람들도 있지만 가상화폐의 전형적인 특성인 고위험을 감수하고 일확천금을 노린 도박꾼들이 투기적 자금을 붓듯처럼 쏟아내면서 사회적 화폐 기능 없이 도박판만 키웠다는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은 일반 증권시장

과는 달리 폐장이 없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24시간 매매가 가능한 점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투자 문외한들이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설불리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지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비트코인 전업투자자로 나선 사례도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종일 비트코인 시세에만 골몰하는 사람들이 많아 비트코인 좀비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비트코인 광풍의 본질적 원인은 사회경제적 불안 및 그로 인한 한탕주의 풍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일상화

할 정도로 소시민들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감이 크고 제도적 안전망은 부족한 상황에서 저마다 각자도생의 자구책을 찾다 보니 국가의 제약이 없고 단기간에 이득을 노릴 수 있는 신개념 비트코인에 끌린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설문조사기관 두잇서베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라는 말에 성인 응답자 3710명 중 62.7%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14.2%에 그쳤다. 또 '살면서 이민을 꿈꿔본 적 있습니까'란 질문에 54.3%가 '있다(꿈꿔봤다)'고 답했다. 사회가 불안하면 한탕주의 심리도 저변에 깊숙이 깔리

게 된다. 광풍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면 괜찮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나빠질지 불안한 상황이라면 '한탕'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비트코인 열풍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화폐 붐과 맞물려 불확실함을 쫓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 또는 회피하기 위해 성공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품게 되는 것도 이상과 열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가 불안하다보니 사람들이 느끼는 돈에 대한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도박심리와 비슷하다"며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광풍에는) 도박 심리, 사행심리, 불안심리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비트코인은 도박과 가깝지만 복권과는 다르다"면서 "비트코인은 훨씬 더 크게 성공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깔려 있고 복권이나 인형뽑기보다 더 중독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젊은층의 비트코인 중독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취업난 등으로 불안감이 큰 청년일수록 성공을 가지화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비트코인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임 교수는 "청년층이 비트코인에 중독되는 건 성공의 가치를 돈에 두고 한탕으로 크게 벌어야 한다고 쫓기는 심리 때문"이라며 "도박보다는 다른 쪽으로 불안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행복을 강도보다는 빈도에서, 작은 행복에서 찾는게 낫다"고 조언했다. 비트코인에 우르르 몰리는 현상을 민족성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국내 거래소 빗썸이 암호화폐 거래량 세계 1위일 정도로 한국에서의 열기는 국제 사회에서도 유별나다. 전형적인 '탈립 문화'의 한 단면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가 집단주의 문화이다보니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신경을 쓴다"며 "남들 하는 걸 잘 따라해 유행도 빠른 편이다.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다 보니 체면문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한 동조심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 비트코인이란?

발행기관 없이 개인간 거래하는 화폐

지난 11월 12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서버 중단 사태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또 한번 쏠리고 있다.

우선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다.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가상화폐다. 2008년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 사용자가 인터넷상에 처음 논문으로 발표하는데 이어 2009년 세상에 내놓은 P2P방식(개인과 개인)의 디지털 화폐다.

가장 큰 특징은 돈을 관리하는 중앙 기관이 없다는 점. 또 블록체인이란 해킹이 어려운, 혁신적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화폐와 이것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이 함께 언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발행·통제하는 기존의 화폐와 달리 가상공간에서 쓰이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 '채굴'하거나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우선 비트코인은 채굴 작업을 통해 얻어야 하는데, 채굴이란 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복잡한 수학 연산 문제를 푸는 것을 말한다. 채굴이 또 무한정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비트코인은 등장할 때부터 채굴 가능한 양이 2140년까지 2100만 비트코인(BTC)로 설정돼 있고, 4년 주기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갈수록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고도의 연산 과정을 거치기 위해 컴퓨터를 가동하는 채굴 과정은 갈수록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다. 이쿤희 서강대 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간한 '블록체인 기술의 기대와 우려' 보고서에 따르면, 채굴 과정에 소요되는 전기 요금은 200억원 수준이다. 비트코인이 생성됐을 때부터 발생한 모든 코인의 전송내역이 10분

단위의 블록으로 형성되고 이 블록들이 계속 연결된 채 컴퓨터에 저장된다. 때문에 채굴 참여가 많아질수록 비트코인 거래를 기록할 컴퓨터가 늘면서 해킹은 어려워지고 보안성은 더 견고해지는 셈이다.

지난 8년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각종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 국경의 제한 없이 전 세계에서 24시간 저택하면서도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거래 지급수단을 넘어 투자 대상으로 '몰 값'이 급등하는 이유다.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화폐는 요즘 각국에서 매일 만들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이들은 가상 공간에서 주도적 화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100여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폐로서의 본원적 역할보다는 시세 차이로 인한 이익이 커 투자상품으로 간주된다. 또 비트코인은 거래 추적이 어려워 암시장의 결제 수단과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가치가 급등해 수익성 좋은 투자상품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이번 빗썸 서버중단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 변동성이 크다.

관련 법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비트코인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비한 점도 문제다. 2014년 2월 당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미운트프스(Mt.Gox)가 해킹 공격으로 인해 고객의 예치금을 도둑맞았다며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미운트프스 측은 자작극이란 의문도 제기됐지만 고객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없었다.

이 때문에 최근의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국제적으로 불리한 속도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주축을 형성할 것이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